

리케이의 수행일기 <下>



이규동

(주)뉴엘코리아 전무이사

광덕 스님께서 늘 법문 어두에 "불광 형제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는 승속의 구분이 없이 대중 모두가 평등한, 대중이 주인공인 법회와 법등을 같이 이루어 나가자는 뜻이었다.

"아나타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

법회·교육등 공동체적 수행 전법

남 위해 봉사 하는 것 가장 큰 기쁨

이것은 80세의 노 부다가 열반 길에서 제자 아난다에게 하신 부촉이다. 이것이 '법등'의 연원이며 그 본래의 뜻이다.

법등을 삼는다는 것은 붓다의 답(법)을 나 자신의 등불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붓다의 답(법)을 이 세간에 전파하는 일이다. 곧 법등은 스스로 법을 수행하고 이웃에게 전파하여, 함께 수행 전파함으로써 이 세상을 광명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직장, 불교대학 등 어떤 조직이 법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도회나 교구조직 정도는 법등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법등의 본의를 망각한다. 법의 등불을 밝혀 스스로 밝아지고 이웃도 밝혀서 나와 남이 다 같이 법의 주인이 되고 존엄한 인간 주체가 되어갈 때 함께 수행, 전법하는 대중들이 성스러운 불교 공동체가 되고 법등이 되는 것이다.

'불광법회'는 이런 의미의

법등을 밝히고 법등을 확산하는 것이지, 외형적 세력을 늘리고 대중을 조직 통제하고 세 포화 하는 그런 류의 법등을 생각한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람 사람의 존엄한 주체성의 실현, 이것을 위한 법등제들의 공동체적 수행 전법, 이것이 법등의 생명이다. 불광 법등 형제들은 이런 공동체속에서 법회, 기도, 교육, 법등 활동, 수행, 호법, 전법, 봉사등 모든 일들을 같이 행해 나가고 있다.

30여 년전, 녹원(직지사 회주) 스님께서 내려주신 '우암(牛巖)'이라는 법명을 받고 소처럼 우직하고 바위처럼 변함 없는 불국토의 머슴으로 살아야겠다는 원을 세웠다. 그후, 어떤 모임, 어떤 자리에서도 머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수행이다. 17년을 같이 살아온 공부같은 정신행 보살이 한듯

안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싫어했지만, 요즘은 가장 행복한 머슴과 하녀가 되어버렸다.

진실로 나의 머슴 생활은 봉사나 보살행,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내가 좋아서 할 뿐이다. 자리에 앉아 잠잠하는 것보다, 서서 움직이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내 가까운 도반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나의 수행 원칙이 있다.

첫째, 자리를 가리지 말라. 둘째, 가급적 많은 스승을 찾아 다녀라.

세째, 가족을 위한 배려와 노력의 가장 좋은 수행이다. 네째, 수행이 신나고 즐거워야 하며, 수행하는 나로 인해 주위 사람이 함께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

조화로운 일상생활에서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임을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수행이 아닐까 한다.



문고 답하며 '반야' 체험

◀12일 부산 무심선원에서 김태완 선원장이 '선으로 읽는 금강경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무심선원의 선(禪)공부

"이게 법입니다."

12일, 부산 남산동 무심선원(선원장 김태완)에서 '선(禪)으로 읽는 금강경 강의'를 진행하던 김태완 원장(46, 부산대 철학과 교수)이 손가락을 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이게 그림자입니다." 곧 이어 똑 같이 손가락을 펴 보이며 김 교수가 한 말이다.

같은 손가락을 펴 보이며 '법'이라고 했다가 곧바로 '그림자'라고 앞의 말을 부정하고 있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김 원장의 말에는 법, 즉 깨달음의 본질이 담겨 있다. 문득 실상을 보는 안목이 생기면 보이는 것 모두가 실상이지만, 그 이전에는 전적으로 그림자만을 본다는 설명이다. 즉, 반야(般若)나 깨달음이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득 실상을 보는 안목을 갖추고 보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듣고 보고 행동하는 것이 그대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임을 김 원장은 거듭 강조한다. 김 원장은 선(禪) 공부의 역량을 시달리는 사람이나, 독화살을 맞은 사람에게 자주 비유하곤

한다. "스스로 독화살을 맞았다는 사실을 여실히 인식하면 그 다음은 그 화살을 뽑겠다는 간절한 생각뿐입니다. 화살을 뽑겠다는 한 생각, 악몽에서 깨어나겠다는 간절한 바람, 즉 반야에 대한 목마름이 공부의 출발입니다."

무심선원은 단순히 경전을 읽고 뜻을 풀이하는 공부모임이 아니다. 경전을 방편 삼아 법을 설하는 모임이다. 설법을 통해 사람들이 자칫 빠져 있기 쉬운 사탄 견해에서 벗어나 바른 견해를 갖추도록 이끌어주고, 바른 견해를 토대로 반야를 직접 실감할 수 있도록 선 공부를 지도해 주고 있다.

이것은 발심(發心), 참문(參問), 참구(參究), 감편(勘辨)과 인가(印可)로 이어지는 조사선의 공부과정은 그대로 실행하는 모델이다. 선을 공부하여 마음을 깨달겠다는 발심을 끌어내고, 발심자들이 묻는 법에 대한 응답으로 깨달음의 인연을 성숙시키거나 의문을 증폭시켜 스스로 참구하게 한다. 그리고 그 참구의 결과에 대해 또 다시 질의응답으로 확인의 공부정도를 판단하고 점검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르

도록 길잡이가 되어준다.

김 원장 자신의 수행 체험을 토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설해지고 있는 설법을 청문(淸問)하는 사람들은 이런 저런 공부모임이나 사찰을 두루 거친 경력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동참자들은 한결같이 김 원장의 설법을 듣는 것만으로도 복잡하던 머리 속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입을 모은다.

공부모임의 심부름꾼을 자임하는 강보영(27·부산대대학원 철학과)씨는 "공부 이후 안정을 찾았다"며 "일상에서 외부적 경제,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으니 이리저리 헤매던 방향에 중추부를 찍었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이치상의 이해를 넘어 실 체험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무심선원의 설법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열린다. 홈페이지(www.mindfree.net)나 통신회원으로 공부 지도를 받고 있는 전국의 회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051)515-7226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현재 나를 놔 버리고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야

"현재의 나를 놔 버리고 조건 없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수행을 하면,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이 올 것이라는 사탄 견해에서 벗어나 반야를 직접 체험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설하는 겁니다."

김태완 교수(46, 부산대 철학과)는 2001년 8월 개원한 무심선원의 선원장을 맡아 선 공부 지도하고 있다. 현대 불교신문에 연재되었던 김 교수의 글을 읽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부산대 강의실에서 공부모임이 시작된 재직년 12월부터 김 교수는 최소한의 학교 강의를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공부 지도에 쏟아붓고 있다.

철학을 전공하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선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김 교수는 하숙집 주인이면서 30여 년간 법을 설하고 있는 스승을 통해 그렇게도 목말라하던 '오직 하나'를 알게 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이후 김태완 교수는 시험삼아 회두를 해보기도 하고 각종 선어록을 읽으며 스스로 맞춘 것과 선인들의 체험을 비교, 동일한 체험임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러한 경험들이 녹아 있는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서장(書狀) 공부>라는 책을 펴냈고, 체험이 살아 있는 선어록을 되살리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무심선원 김태완 원장

수행 캘린더

■ '깨달음' 주제 순회법회=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8개 시에서 '깨달음의 법문'을 주제로 전국 순회 법회를 연다. △4월 28일 오전 11시 울산정토회, 오후 7시 30분 마산정토법당 △29일 오전 11시 및 오후 7시 30분 부산정토법당 △30일 서울정토법당 △5월 1

일 오전 11시 정주정토법당, 오후 7시 30분 대전정토법당 △2일 오전 11시 광주정토법당, 오후 7시 30분 대구정토법당. (02)587-8993

■마조록 강설=우곡 서울선원(www.zenkorea.org)은 매주 월요일 오후 8-10시 해월 법사의 강의로 마조록 강 설 법회를 연다. (02)529-5027

■ '깨달음의 길' 수련=명상이가 데미(www.bodhitao.com)는 4월

27일(일) 저녁 7시~5월 2일(금) 오후 3시 오대산 수행처에서 5박 6일간의 '깨달음의 길' 정구수련을 갖는다. 5월 5-9일, 5월 25-30일에도 같은 수련회가 열린다. (02)598-7180

■백련암 아비라기도=해인사 백련암(www.songchol.net)은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5일(음력 4월 15일) 12시까지 3박4일간의 아비라기도를 한다. (05)932-7300

(www.fuoyee.or.kr)은 23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2시~3시 30분 불정진법회를 연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4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02)582-9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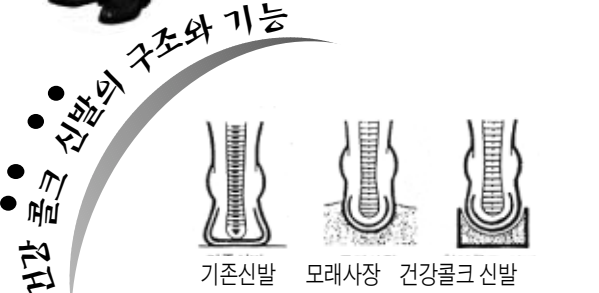
■보림선원 정기수련=보림회(www.borim.co.kr)는 26일 저녁 8시~27일 오후 1시 경남 산청 보림선원에서 정기 총회 및 수련회를 연다. (055)972-9555

■천수다라니 10만독=광주 자비선교회(www.jabee.or.kr)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자비선교회 법당에서, 매일 지정재일(음 18일) 대원사 천불전에서 천수다라니 10만독 기도법회를 각각 연다. (062)234-2732

■보현심행 강의=경기불교문화원은 25일부터 6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화엄경(보현심행) 강의를 연다. 강사는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인 묘주스님. (031)251-1083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권행"

권행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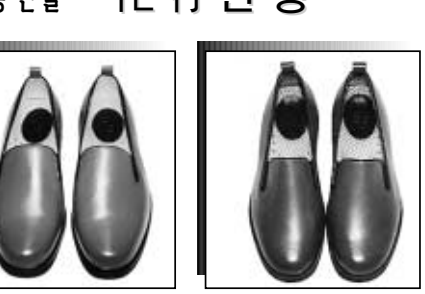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 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능: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중흥 무진으로 뿐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까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성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권행만행



· 비구스님 용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용 · 회색, 흑색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유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경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구입문의 031)742-0296.742-0297 권행합장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 1동 661번지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봉구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회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회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 1. 구두안쪽의 특수 인형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